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2010년도 표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요8:29, 시37:4)

행동지침

- 1.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교회
- 2. 성수주일을 철저히 실천하는 교회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의 모범이 되는 교회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부활절메시지

### 사망이라는 원수를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날

오늘 아침 우리들은 한 위대한 힘 앞에서 있습니다. 그 분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찾아다니시는 분입니다. 동서고금, 춘하추동, 밤낮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 위대한 힘 앞에서 우리는 웃음을 머미고 흐리는 산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많은 교회의 유명한 설교자들이 주지 못하는 큰 감화력을 갖고 있어 그 앞에 서기만 하면 목석같은 사람의 마음도 뜨겁게 녹아지고 평시에 눈물 한 번 없던 영웅호걸도 그 분 앞에서 낯엔 후회와 분노와 억울함의 눈물을 터뜨리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을 저지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의 이 큰 마력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그가 찾아오는 것을 싫어하고 그를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 하고 관심밖으로 밀어내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 분은 누구십니까? 어느 위대한 스승의 말씀보다 확실하고 과학의 힘으로도 그의 위력 앞에는 대결할 수 없는 그분의 이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부모의 사랑이 아니면 황금이나 권력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이실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위대한 힘의 이름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회랍의 철학자 플라토는 “인간의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그러므로 죽음은 영혼의 해방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영혼의 해방자가 아니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우리의 마지막 원수입니다(고전 15:26). 사도 바울은 사망을 의인화해서 원수를 부르듯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했습니다. 사망의 표적은 죄였습니다. 그 죄는 사망에게 독을 준 것입니다. 그 죄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생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음으로 율법의 완성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더 이상 예수 안에 있는 이들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죄가 떠난 우리는 사망의 표적이 더 이상 아닙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사망은 잡아먹을 것을 앞에 놓고도 물질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망의 해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의기양양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크게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주심으로 사망은 무색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시어 그 안에 있는 모든 이의 부활을 확실하게 보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목사 이 중 윤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CTS,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 예수 부활 하셨네

## 주일 I II III 부: 예배시간 - 성찬예식/ 찬양예배 - 부활절 감사찬양

하나님은 죄인 되어  
두무지 희망이 없던 우리  
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오늘은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지키

며 주님의 삶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 I II III부  
예배 시간에 성찬예식을 거행한다. 우리는 이  
성찬을 깊은 회개와 감사의 기도로 받고 부활  
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는 임마누엘 찬양대  
(부장 : 하영수 장로)가 '메시아' (G. F.

HANDEL 작곡)를, 지  
휘 류충기 집사, 오르간  
강민정 집사, 피아노 양  
경실 집사의 반주로 하  
나님과 성도들께 들려  
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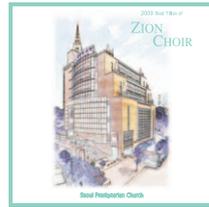
은 성도가 주님의 부  
활을 감사하는 찬양예  
배로 드리도록 한다. 한

편 교회학교에서는 주님의 부활을 세상에 널리  
전하기 위해 부활절을 기념하는 달걀을 가지고  
나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전하며 전  
도에 힘쓰도록 한다. 모든 성도들이 감사와 기  
도로 맞이하는 부활주일이 되도록 기도한다.

## 위임목사 동정

이종윤 목사는 현재 미국(애틀랜타, 워싱턴DC 등지)에서 연  
합집회 인도, 강의,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집회 후에는 영국(스코틀랜드)에서 열리는 세계개혁주의협의회  
(WRF) 총회에 참석하여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인  
사의 말씀과 보고 할 예정이다. 귀국은 4월 20일(화)에 할 예  
정이다. 이종윤 목사의 건강과 영력을 위해 성도 여러분의 기도를  
바란다.

## 시온찬양대 CD 제작



우리교회 수요2부예배를 담당하는  
시온찬양대(부장: 신용식 장로, 지휘 :  
백경화 집사는 2009년 수요예배, 특별  
찬양, 흥해작전, 사명자대회에서 드린  
찬양곡들 중에서 19곡을 선별하여 CD  
를 제작하였다. CD는 따로 판매를 하  
지 않으며 원하는 성도는 시온찬양대  
에 문의하기 바란다.

### Easter message for foreigners

# Easter Matters

By Rev. Joshua Cho



Why does Easter matter to me  
as a foreigner in Korea?

Easter matters, not just  
because some Jewish Messiah  
named Jesus pulled off the  
impossible by miraculously rising  
from the grave 2,000 years ago.  
Easter matters, because I am  
united to him by faith. Since I am  
united to Christ in his death, my  
sins have been paid for at the  
cross, and I am clothed with his  
righteousness. Since I am united to Christ in his  
resurrection, I have hope for a future bodily  
resurrection that is coming one day.

But there is more. The same Holy Spirit who  
will raise my future body is at work in me today.  
In other words, the power that drew out the  
material universe out of nothing is the same  
power that raised Jesus from the dead. The  
power that raised Jesus from the dead is the  
same power that will raise me from the dead on  
the final Day. The power that will raise me from  
the dead is the same power that empowers me  
to overcome my bad habits today. The power  
that empowers me today is the same power that  
opens the heart of a closed non-Christian who  
doesn't believe.

Easter matters, because I am constantly at the  
mercy of a culture that is trying get their money's  
worth and squeeze out every drop, while

simultaneously making simple tasks like ordering  
food an ordeal. I am enticed by the anything  
that reminiscenses of home, promising even a  
brief moment of comfort and pleasure. I am a  
weak and struggling Christian that needs real  
power to survive. I need more than inspirational  
preaching. I need resurrection power. Easter  
matters, because I have access to real, tangible  
power that is mine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The Holy Spirit leads me by the hand to a  
breathtaking scene in heaven. The resurrected  
Jesus is interceding on my behalf. He is praying  
for me by name. The prayers of a righteous man  
are powerful and effective.

Easter matters, because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and no matter what happens in  
this foreign land, I will stand with him on that  
Day.

### 부활절 특별찬양

## 부활의 예수님

이영수 장로 (임마누엘찬양대 부장)

예수님 다시 사신 부활의 이 아침!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오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  
주님의 승천과 복음의 전파,  
그리스도의 승리,  
부활에 대한 확신,  
영원한 하늘나라의 찬송,

임마누엘 찬양대가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통하여  
부활의 예수님을 찬송, 또 찬송합니다.  
뜨거운 은혜의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며

#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소망



김병용 집사(6교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대로, 예수님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위에서의 못박힘, 고통, 희롱, 찢림, 흘리신 피와 물과 죽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대속제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역경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되었고, 모든 슬픔과 절망이 사라지고, 새 소망이 솟아올라, 위대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고난 중에 있을 때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 위로받고 해결함을 얻게 됩니다.

3년 전 저는 직장암(3기말) 절제 수술 후, 6개월 동안 각 30회의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 중 극심한 고통

을 겪었습니다. 작년 10월, 또 양쪽 폐 수술을 하여 마취에서 깨어난 후, 심한 통증으로 시달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겪으신 고통에는 비교가 안되는, 나의 죄 짐을 지고 용서함 받기 위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주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지금 나를 연단하고 있음을 깨달았으며, 죄를 회개하고 감사하며 아픔을 참아 낼 수 있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중 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담대하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간구하며,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기도해 주신 중보기도 팀과 성도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기쁨으로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할 수난절이 있습니다. 지금 육신의 질병과 영의 시험으로 고통 받는 분이 계십니까? 십자가 고통을 묵상함으로써, 주님이 겪으신 고난을 깊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소망되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 무지개 사랑



김찬진 권사(2교구)

몇 달 전 느닷없이 갑상선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이 결정되고 지금까지 저는 많은 분들에게 사랑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수술 당일, 낮 12시 20분에 수술실에 들어가서 마취 전 의사 선생님과 대화 후 눈을 뜨니 저녁 8시 20분이었습니다.

시계를 본 순간 또 두 불을 타고 눈물이 주무룩 흘렀습니다. 위임 목사님과 목사님들이 떠올랐고 남편과 자녀들이 생각나며 긴 시간동안 기도해 주신 분들 덕분에 내가 눈을 뜨는구나 생각하니 뜨거운 감사의 마음이 넘쳤습니다. 침도 삼키기 힘든 고통의 수술 첫날밤을 새벽부터 오셔서 말씀과 기도로 힘을 주신 교구와 부서의 목사님 전도사님! 건강 검진할 때 갑상선에 이상이 있는듯하니 초음파검사 해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아침침식기도에 들어간 신실한 남편!

수술 전 후두를 누르고 있는 결절 때문에 걱정하신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 끝난 후 바로 확인하시고 후두 손상과 마비가 없다는 말씀에 주님께서 아직 도 저에게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하니 제가 사랑하며 살아온 것 보다 더 많이 사랑받은 것에 대

한 사랑의 힘으로 거의 밤을 새웠습니다.

퇴원한 날 새벽에도 편안하게 인도 해주셨던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두 번 세 번 혹은 전화로까지 간절한 기도 가운데 받은 사랑은 곱고 아름다운 색깔을 아울러 내는 무지개 사랑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맞는 주일 아침! 서울교회로 달려가서 예배에 참석하고픈 마음은 간절하였지만 몸의 한계 때문에 예배시간 10분전에 1층 로비에 있는 컴퓨터 앞으로 가서 준비해간 이어폰을 꼽고 서울교회 홈페이지로 들어가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슴 벅찬 감격 속에 정말로 뜨거운 감사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나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예배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는 공간을 초월하였습니다.

그 이후 저요드식과 동위원소 치료 후 스캔 결과가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정기검진만 받으면 된다는 의사의 말로 치료는 끝났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무지개 같이 영롱하고 찬란히 빛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믿음의 서울교회 가족들이 생각나서 한없이 감사하고, 날 위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순간이 됨을 감사하며, 이제 남은 시간들을 더욱 주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픈 마음 뿐입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계속되어지길 바라면서...

부활절을 맞이하며



# 부활의 꽃 예수

신동기 권사(12교구)

낮달은 피로 물들어  
빛을 잃고  
어둠이 울음처럼 멍쳐있던  
그 곳 같보리

고운 모양도  
흠모할만한  
아무 것도 없는  
십자가에  
달린 당신

붉은 꽃잎  
뚝!  
뚝!  
갈보리 비탈길로 흐르고

떠나며  
이르는  
생명과 죽음

그 피로 그은  
시작은  
순간부터 영원까지 새롭다

갈릴리 해변  
하얀 꽃으로 풀어놓아  
흐드러 지는데

육의 것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꽃 예수

내 안에  
이렇듯 눈부신 부활의 당신이  
계시다는 것을



부활절을 맞이하며

# 나에게 부활절은...



김민선 (중등부 2학년)

가롯 유다의 배신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자녀 된 우리는 마땅히 사순절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그냥 시간만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학원으로 매일을 보내면서 중요한 사순절이란 절기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보냈던 것입니다.

사순절에는 예수님 인생의 하이라이트이자 최종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들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보여 주셨던 모든 가르침들을 정리하시고, 실천하셨던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방관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되도록 이 일은 피하게 해 달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자신이 곧 제자에게 팔려서 모욕을 당하고 그 당시 최고의 극형이었던 십자가에 못박혀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국 그 잔을 지셨습니다. 자신이 하기 싫고 무서운 일이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뜻이니 순종하셨을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하기 싫은 일임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순절을 되새기며, 저는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난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적어도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조금 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복잡한 마음과 여러 가지 여건 사이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하기에 집중하길 기도합니다.

한세희 (중등부 3학년)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을 단지 계란 먹는 날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축하하는 날로 지켜온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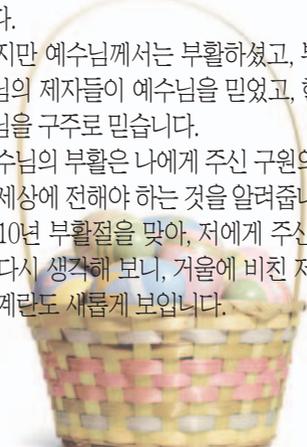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죄와 죽음을 이기는 것이 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이 진리임을 알려줍니다. 만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지 않았을 것이며 예수님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부활하셨고, 부활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현재의 저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주신 구원의 언약과 사랑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2010년 부활절을 맞아, 저에게 주신 부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니, 거울에 비친 저도 내 눈에 비친 계란도 새롭게 보입니다.



# 결혼 예비학교

한상은 목사(결혼예비학교 지도)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과 결혼을 원하는 청년, 그리고 희망하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결혼 예비학교'가 지난 3월 14일(주일) 시작되어 현재 6커플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서울교회 결혼 예비학교는 서로 다른 가정과 환경 속에서 성장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된 이들에게 결혼생활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교육하여 기독교적인 결혼관을 정립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년에 두 차례 상반기와 하반기 열린 프로그램 일정에 맞추어 진행되는 결혼예비학교는 5주 과정으로 이번에는 신앙과 가정, 신혼의 성스러운 성, 결혼과 재정관리, 남편과 아내의 역할과 위치, 성경적 결혼관 등을 주제로 진행한다. 강좌별 강의는 해당분야 전문가가 담당하며, 강좌가 진행되는 중 신혼가정부 회원들과의 만남의 시간도 있을 예정이다. 결혼예비학교는 4월 11(주일)까지 매주 주일 12시 40분에서 50분간 905호에서 진행된다.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



## 동정

- 이사: (12교구) 전훈덕 집사, 정혜승 집사 가정 : 분당구 야탑동 탐미울성경아파트 102동 1501호
- 개업: (14교구) 문옥희 집사, 목련미용실, 강남구 일원동, 3411-8163
- 독창회 : (12교구) 최유현 성도 4월 9일 오후 7시30분 성남아트센터 타양상블시어터
- 주간식당 봉사: 한나전도회(4.4) 리브가전도회(4.11)
- 금주의 식사 : 교회제공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예 배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 회	오후 8시30분	
새 벽 기도 회	오전 5시30분	

## 제1·2스데반회 주최 특강

4월 17일(토) 오후 3시30분 - 101호에서

우리교회 제1·2스데반회 (최광성집사, 송인권 집사) 주최로 특강이 4월 17일(토) 오후 3시 30분 101호에서 열린다.

강사로는 최순영 장로 (전 신동아그룹 회장)으로 특강 제목은 '10년간의 고난'이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울교회 되게 하소서.
2.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3. 세계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4. 북한의 군사적 도발 중단되고 복음화된 통일조국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 교회오시는 길

